"광역의원 배심원단 구성, 중앙당서 뽑는 하향식이 원칙"

새정치연합 공천관리위원장 노웅래 의원 단독 인터뷰

현직 단체장·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허용 안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호남지역 지방선거는 당원 경선이 사실상 배제된데다 기초선거 무공천 등으로 어느 때보다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광주일보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경선 전반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실에서 1시간동안 진행됐다.

-오늘 4개의 경선 룰이 정해졌다.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다는데 호남 광역단체장 경선 룰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후보들의 합의가 먼저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호남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은.

▲아무래도 호남의 경우,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4월 말 정도, 가장 나중에 이뤄질 것이다.

-전략공천 가능성은 있는지, 컷-오프(예비경선)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 대표가 나눠먹기식 전략공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각각 3명씩인데다 지지율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 가능성은 낮다. 다만 공심위 과정에서 꼼꼼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다.

-배심원단 구성은.

▲상향식(시민참여)과 하향식(중앙당 콜센터 선정)이 있다. 상향식은 흥행이라는 장점과 동원이라는 단점이 있다. 하향식은 동원은 막을 수 있지만 흥행 요소가 약하다. 공천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후 결정하겠다.

-배심원단 규모는.

▲상향식의 경우 유권자의 0.2%, 하향식의 경우 3000명 규모로 한다. 광역의원 배심원단은 하향식을 원칙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은 200~300명, 많은 지역은 500명 수준이 될 것이다.

-배심원단 투표 방법은.

▲전문 패널 5~6명이 후보들에 질의, 응답 과정을 거치고 후보자들의 상호 토론이 진행된다. 이후 배심원단이 투표를 진행한다. 이전에 TV 토론도 있을 전망이어서 배심원단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 문제는.

▲경선 이전, 예비후보 등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다. 어느 한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한다면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하다.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사퇴는 뽑아준 유권자에게도 무책임한 것이다.

-광역의원 여성 공천 30%는 지켜지는가.

▲당헌당규에 적시됐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검증된 여성 후보라면 공천에 노력하겠다. 하지만 여성 정치인이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30%를 채울 것인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에서 착신은 배제하나.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적으로 60% 정도 착신을 배제할 수 있고 여론조사 응답 이후 다시 착신 여부를 검증, 착신으로 결론나면 무효화하겠다. 일반전화에서 일반전화로 착신한 것은 아무래도 동원용 착신으로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에서 당원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호남지역 당원들의 섭섭함이 크다.

▲호남 당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이자 심장이다. 죄송한 마음이 크다. 하지만 호남 당원들이 새정치를 위한 진심을 알아줄 것으로 감히 기대한다. 호남 당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뛰어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내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경선룰 전쟁' 2R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이해 따라 배심원단 구성·여론조사 방식 등 경선 시행세칙 놓고 신경전 조짐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방안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제는 시행세칙을 둘러싼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조짐이다.

노웅래 사무총장이 이날 발표한 경선방식은 ▲공론조사 50%+국민여론조사 50% 반영안 ▲100% 공론조사 반영안 ▲권리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 반영안 ▲100% 국민여론조사 반영안 등 4가지. 하지만, 큰 틀의 경선방식일 뿐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수십가지 이상이 나올 수 있다.

우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의 경우 4가지 중 어떤 방식이 선택될지가 쟁점이다. 그동안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공론조사 50%+국민여론조사 50%'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됐지만 일단 각 지역별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광주시장후보 경선의 경우,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측이 '100% 공론조사'를 선호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시도별로 큰 틀의 경선방식이 결정되더라도 선거인단 규모나 모집 방식 등 세부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후보 간 유불리가 달라진다. 후보들이 시행세칙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다.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 유권자의 신청을 받는 '상향식'과 당 선관위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모집하는 '하향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에 따라 후보들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전남지사 경선의 경우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 측은 하향식을 선호하고 있다. 상향식을 선택할 경우 조직동원이 이뤄지면서 곳곳에서 '돈 경선'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다. 이석형 예비후보 측은 상향식의 경우는 민주계에서 50%, 새정치연합 측에서 50%를 할당해야 하고, 하향식의 경우는 당원을 완전 배제하고 일반도민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조직력이 강한 강운태 광주시장 측이 상향식을 선호하고 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하향식은 여론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100% 여론조사 방식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섭 의원 측과 윤장현 전 위원장 측은 조직 동원의 우려 때문에 하향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야권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여야 지지층 구별 없이 모집하는 '아웃바운드'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지도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인바운드' 방식은 민주당 측이, '아웃바운드' 방식은 안 대표 측이 선호하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의 경우 여당 지지자가 희박하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후보가 '어느 방안도 상관없다'는 반응이다.

이 밖에도 공론조사의 경우 순회경선방식, 후보자 간 토론이나 TV토론에서의 패널 선정, 토론 순서, 공통질문 주제 선정 등을 놓고, 여론조사의 경우 설문지 작성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6·4지방선거 광주연대' 발족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등 7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인한 후보검증을 위한 한시적 연대기구인 '6·4지방선거 광주연대'를 발족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062.605-1114 · 대학원 062.605-1115

착신전환 전화 여론조사 왜곡 논란

새정치연합 경선 배제 방침 기술적으로 100% 차단 못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도입될 경우 전화 착신 배제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론조사 경선에서 전화 착신은 배제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술적으로 전화착신을 100%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노웅래 사무총장도 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술적으로 60% 정도는 착신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이후에도 다시 검증해 착신으로 결정난 응답은 무효화 하겠다"며 전화 착신 배제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경선 결과가 나올 경우 패배한 후보 측에서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0년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강운태 시장이 0.45% 차이로 이용섭 의원에 승리하는 등 박빙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과정에서 착신 결정 여부에 대한 후보들 간 다툼의 소지도 크다. 특히 개인사정으로 전화 착신을 한 유권자들이 경선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중앙당이 전화 착신 배제에 대한 기술적 준비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경선 결과의 신뢰 상실과 함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tuim@kwangju.co.kr

전화 착신전환 단속

선관위 전국 400명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조직적인 '전화 착신 전환'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3일 "전국 시·도 선관위에서 54개 광역조사팀 소속 400여명을 투입해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조작 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 조사하도록 2일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전화 착신 전환은 많게는 수천개의 전화번호에 착신 전환 서비스를 신청해 특정 후보 측의 전화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여론 조작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 브로커가 전화국에서 다수의 전화 회선을 확보하는 데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부터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조작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자유투어는 70억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자유투어
No.1 종합여행그룹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황금연휴-무안직항 5/3 출발
(무안출발 05:00~무안도착 02:30)
대만전세기 1,250,000원~
특급호텔, 노팁, 노쇼핑, 노옵션
자유투어 창사 20주년 기념 (선착순 특가)
★타사비교 필수★ - 공통사항
캄보디아 4일/5일 ★광주 출도착 기준, 맛사지 포함★ (5/8~6/26까지)
캄보디아 4일
(광주출발 수,목요일 01:40~광주도착 일요일 24:00)
4성급호텔 399,000원
캄보디아 5일
(광주출발 토,일요일 13:00~광주도착 목요일 12:00)
5성급호텔 439,000원
예/약/상/담 | 상 무 점 062)652-2974 | 전 주 점 063)284-6868 | 광 양 점 061)792-7222 | 나 주 점 061)332-7400 | 광 천 점 062)512-1713